



선덕여왕의 이미지 창조

Making Queen Sndk's Images

저자 (Authors)	정연식 Chung Yeon-sik
출처 (Source)	한국사연구 (147) , 2009.12, 83-119(37 pages) The Journal of Korean History (147) , 2009.12, 83-119(37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사연구회 The Association For Korean Historical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320823
APA Style	정연식 (2009). 선덕여왕의 이미지 창조. 한국사연구(147), 83-11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6/27 13:4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선덕여왕의 이미지 창조

정 연 식*

- | | |
|----------------------|-------------------|
| I. 머리말 | IV. 향기롭고 신묘한 여왕으로 |
| II. 여왕의 덕목과 흠 | V. 신통력 있는 여왕으로 |
| III. 성스럽고 위엄 있는 여왕으로 | VI. 맺음말 |

I. 머리말

632년 신라에 善德女王(재위 632~647)이 즉위했을 때에 한반도에는 전운이 가시지 않고 있었다. 598년 영양왕의 요서 공격과 수 문제의 반격으로 촉발된 전쟁이 북쪽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었다. 삼국통일 전쟁이 예고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시점에 신라에서는 성골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여인이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다. 귀족들의 불만이 없을 리 없었다. 여왕은 즉위 8개월 전에 이미 柒宿과 石品の 반란을 꺾어야 했다. 국내 분위기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을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는 바이다.

여왕이 즉위하면서 새로운 여왕에 대한 기대와 의구심이 뒤얽힌 상황에서 다른 왕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신기한 설화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졌다. 널리 알려진 모란설화, 玉門池설화, 忉利天설화의 이른바 ‘知幾三事’와 아울러 志鬼설화, 刹利種王설화까지 가세하였다. 이

* 서울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시기는 다른 왕의 통치 시기와는 다른 특별한 시기였다. 그러므로 여왕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필요했다. 즉 여왕에 대한 의구심을 종식시키고 여왕의 통치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왕의 아름다움, 영험함, 신성성과 관련된 신화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여왕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침성대, 분황사, 영묘사 등이 세워지고 나중에는 황룡사구층탑이 세워졌다.

절대왕정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재위 1558~1603) 때에도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다. 여왕은 스스로도 밝혔듯이 내세울 만한 얼굴을 갖고 있지 않았고, 유럽 최고의 미녀로 칭송 받는 사촌, 스코틀랜드의 매리 스튜어트에게는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다.¹⁾ 그녀는 늙을수록 짙은 화장을 하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하면서 아름다움을 꾸며다. 아름다운 이미지 만들기가 성행하여 초상화에서는 50대부터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젊고 아름답게 그려졌다.²⁾ 엘리자베스는 문학 작품에서 요정 여왕(Fairy Queen), 달의 여신 다이아나(Diana)·신시아(Cynthia), 순결과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Astraea)로 묘사되었고, 70세가 되던 해에는 ‘지상에서는 첫 번째 처녀, 천상에서는 두 번째 처녀’로 찬미되어 성모 마리아에 버금가는 성처녀로 승격되었다.³⁾ 여왕의 즉위 초부터 착한 여왕, 신성한 여왕,神通력 있는 여왕, 아름다운 여왕 등의 여러 가지 이미지 만들기 와 상징조작은 여왕의 통치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선덕여왕은 훨씬 더 악조건과 싸워야 했다. 엘리자베스 1세는 25세의 젊은 나이로 블러디 매리(Bloody Mary)라는 악명으로 유명했던 매리 1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주위의 기대를 안고 즉위했다. 하지만 선덕여왕은 이미 50세쯤에 처음으로 여자로서 왕위

1) 이종인 옮김, 2002 《음모와 집착의 역사》 이마고(Collin Evans, 2001 *Great feuds in history*)

2) 이지원, 2004 <춤추는 이미지: 엘리자베스 1세의 이미지 정치> 《역사와 문화》 19, 233; 2005 <성처녀에서 여신으로> 《학림》 25·26, 164

3) 박지향, 2004 <‘처녀왕’ 엘리자베스의 신화> 《영국연구》 11, 30~35; 이지원, 2004 <앞 논문> 235~236

에 올랐고 즉위 직전에 여왕의 통치를 반대하는 반란까지 겪었다. 엘리자베스는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무찌르고 대영제국의 기틀을 닦았으나 선덕여왕 때에 신라는 백제군이 王京의 코앞까지 들이닥치는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왕의 통치기반을 안정시키는 일은 더욱 시급했고 더욱 간절했다. 통치의 내실을 기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여왕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일이 급했던 것이다. 그것이 여러 가지 신비한 설화를 낳게 했던 것이다.

이른바 ‘知幾三事’와 더불어 선덕여왕 당시의 설화들은 기존의 연구에서 몇 차례 분석된 바 있다. 그리고 시각도 문학, 역사, 종교 등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되었다. 하지만 한 가지 시각에서만 바라본 결과 설화가 만들어진 당 시대의 의도가 충분히 이해되지 못한 느낌이 없지 않다. 이 글에서는 선덕여왕 설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세밀한 분석을 통해 설화의 창작, 배포 의도를 파악하여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새롭게 이해하는 작은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II. 여왕의 덕목과 흠

1. 德과 智를 겸비한 여왕

선덕여왕이 어떠한 왕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의 즉위 기사에 ‘寬仁明敏’ 네 글자로 설명되어 있다. 너그럽고 인자하고 명석하고 재치 있다는 말이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마음씨 곱고 총명했다, 즉 德과 智를 두루 갖추었다는 뜻이다.

덕과 지는 왕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 그 중에서도 덕은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신라인들은 ‘덕 있는 사람[有德人]’을 찾아서 박혁거세를 왕으로

받들었고, ‘덕 있는 여자[有德女君]’로 그 배필을 삼으려고 알영부인을 모셨으며,⁴⁾ ‘덕 있는 사람은 이가 많다[有德者多齒]’고 하여 유리 이사금을 선출했다.⁵⁾

선덕여왕이 덕 있는 여왕이었음은 ‘善德’이라는 시호가 대변하고 있다.⁶⁾ 선덕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도리천의 天子, 帝釋, 《維摩經》에 등장하는 長者의 아들, 부처 열반 시에 참석했던 남자 신도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大方等無想經》에 아쇼카왕의 전생으로 등장하는 善德婆羅門이라는 해석이 널리 알려져 있다.⁷⁾ 하지만 신라에서 ‘白淨, 勝曼’처럼 왕의 이름을 불경의 인물로 정한 사례는 있지만 시호를 불경에 등장하는 인물로 정한 사례가 전혀 없다. 그리고 신라인들이 잘 알려져 있지도 않은 《대방등무상경》이라는 경전에서 굳이 브라만의 이름을 찾아냈을 가능성이 적고, 그것도 남자의 이름을 찾아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호는 신라의 다른 왕들의 시호가 모두 그랬듯이 생전의 성품과 업적을 압축하여 선정하는데 아쇼카왕에 비유하는 것은 더욱 어울리지 않는다. 아쇼카왕

4) 《三國遺事》 권1, 紀異1 新羅始祖赫居世王

5) 《三國遺事》 권1, 紀異1 新羅始祖赫居世王 ;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1 儒理尼師今 ; 《三國遺事》 권1, 紀異1 第三祭禮王

6) ‘善德’이라는 칭호를 《舊唐書》에 金善德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생전의 이름이었을 것으로 추측한 연구도 있다(남동신, 1992 <자장의 불교 사상과 불교치국책> 《한국사연구》 76, 29).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시호이다. 첫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나 모두 지증왕 때부터 시호를 썼다고 기록하고 있고(《三國遺事》 권1, 紀異1 智哲老王 ;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智證麻立干 15년), 둘째 그 후의 왕들은 모두 시호와 이름을 따로 기록하고 있는데 선덕여왕에게는 德曼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었으며, 셋째 《삼국사기》에서 선덕여왕의 사망 기사에 시호를 선덕이라고 했다고 밝히고 있고(《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善德王 16년), 넷째 《삼국유사》에서도 시호를 선덕여대왕이라고 했다고 명시하고 있다(《三國遺事》 권1, 紀異 善德王知幾三事). 이 모든 증거를 《구당서》의 기록 하나로 뒤집는 것은 무리다. 중국의 입장에서 신라 역사는 변방 여러 이민족 중의 한 민족의 역사일 뿐이므로 정밀성을 기하지 않은 결과 《구당서》를 편찬할 때 예 기록을 모으는 과정에서 시호 선덕을 그대로 이름으로 썼던 것이다.

7) <위 논문> 29~30

은 인도 역사상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루어 전륜성왕에 비유되지만 선덕여왕 때에는 오히려 영토가 크게 축소되었다. 따라서 선덕이라는 시호는 글자 그대로 여왕이 마음씨가 곱고 덕이 있었기 때문에 올려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여왕의 성품은 여왕이 즉위 초반에 펼친 정책들이 대변하고 있다. 여왕은 즉위하자마자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일에 진력했다. 즉위하던 해 632년에는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는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노인들을 진휼하고, 그 이듬해 정월에는 神宮에 제사를 지낸 뒤 대사면을 내리고, 이어서 여러 고을의 세금과 부역을 1년간 면제해 주었다. 635년에는 이찬 水晶과 龍樹에게 명하여 여러 고을들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형편을 보살피게 하였다.⁸⁾ 선덕여왕 초반의 이 네 건의 기사는 작은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선덕여왕 즉위 이전 100년간의 《삼국사기》 기사를 추적해 보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선덕여왕 즉위 전의 대사령은 540년(진흥왕 1), 555년(진흥왕 16), 577년(진지왕 2) 세 차례 있었다. 그러므로 선덕여왕의 대사령은 55년만의 일이었다.⁹⁾ 그리고 주군의 세금과 부역을 1년간 면제해 준 것은 약 80년만의 일이었다. 그것도 555년에 진흥왕이 북한산을 순행하여 국경을 정할 때 왕이 거쳐간 고을에만 베풀어진 혜택이었다.¹⁰⁾ 전국에 사람을 보내 鰥寡孤獨을 보살피게 하거나 고위관료를 보내어 고을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慰撫하게 한 일은 100년 내에 전혀 없었다. 그것은 기록이 소략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기록들이 선덕여왕 때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은 예전과는 다른 정치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여왕은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이해하고 어루만지

8) 《三國史記》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원년 10월; 2년 정월; 4년 10월

9) 《三國史記》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원년 8월; 진흥왕 16년 11월; 진지왕 2년 2월. 대사령은 종종 신왕의 즉위를 기념하여 선정의 구체적 표현으로 시행된다. 진평왕의 즉위 때 대사령은 확인할 수 없는데 이는 기록의 누락일 수도 있다.

10) 《三國史記》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6년 11월

려 했던, 선하고 덕 있는 여왕이었다.

그리고 《삼국유사》의 황룡사구층탑 설화에서 慈藏이 중국에서 만난 神人이 여왕이 '덕은 있지만 위엄이 없어서[有德而無威]' 이웃 나라들이 침범하는 것이라고 했고, 安弘의 《東都成立記》에도 '도는 있으나 위엄이 없어서[有道無威]¹¹⁾ 九韓이 침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시각을 달리하여 이해하면 덕은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와 김춘추의 혼인 설화도 선덕여왕이 인정이 많았음을 알려주고 있다. 문희가 혼인도 하기 전에 김춘추와 관계하여 임신하자 김유신이 짐짓 문희를 태워 죽이겠다고 장작불을 지켰더니 남산에 있던 선덕여왕이 연기를 보고는 옆에 있던 김춘추에게 어서 내려가 문희를 구하라고 하여 두 사람을 맺어주었다는 일화이다.¹²⁾ 이 설화는 구체적인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¹³⁾ 김춘추와 김유신 집안의 정략결혼이 순조롭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설화로 해석되는데¹⁴⁾ 한편으로는 선덕여왕의 성품을 알려주는 설화라고 볼 수 있다. 김유신이 한바탕 거짓 소란을 피운 것은 선덕여왕이라면 사람이 죽게 된 것을 보고는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선덕여왕이 남산에 올랐을 때를 틈타 연기를 피워 올렸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선덕여왕은 정말로 지혜 있는 총명한 왕이었을까? 선덕여왕이 총명했다는 것도 굳이 부정할 이유가 없다. 덕만공주가 왕이 된다면 중국에도 없었고 신라에도 없었던 여왕이 처음으로 즉위하게 된다. 진평왕으로서도 아무리 성골 남자가 끊어진 불가피한 상황이

11) 《三國遺事》 권3, 塔像4 皇龍寺九層塔

12) 《三國遺事》 권1, 紀異1 太宗春秋公

13) 이 설화는 사실 선덕여왕 때의 일이 아니라 덕만공주 때의 일이 되어야 한다. 김춘추와 문희 사이에서 문무왕이 태어나고 그 아우 김인문이 태어났는데 김인문은 629년생이다. 그러므로 문무왕의 출생연도는 늦게 잡아도 628년 이전이며 628년은 선덕여왕이 즉위하기 4년 전이다.

14) 주보돈, 1994 <비담의 난과 선덕왕대 정치운영> 《이기백선생교회기념한국사학논총(상)―고대편·고려시대편―》 (일조각) 222

라고는 하지만 딸을 왕위에 앉히는 것은 상당한 모험이었을 것이다.¹⁵⁾ 이런 상황에서 그저 평범하거나 아둔한 딸을 후계자로 지목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삼국유사》의 모란설화나 옥문지설화는 물론 신화처럼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왕이 총명하다는 사실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된 이야기였을 것이다.

2. 위엄 없는 여왕

선덕여왕은 제왕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덕목은 갖추었지만 충분한 덕목은 갖추지 못했다. 즉 위엄이 없었다. 선덕여왕 때에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이 선덕여왕이 ‘덕은 있으나 위엄이 없고[有德而無威]’, ‘도는 있으나 위엄이 없어[有道無威]’ 이웃 나라들이 업신여기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선덕여왕에게는 왜 카리스마가 풍기지 않았을까? 위엄이란 종종 착한 마음씨와는 어울리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고대사회의 정치 영역에서 여인과는 어울리기 어려운 것이었다.

위엄이 있기 위해서는 외형에서 풍기는 위압감이 중요하다. 고대의 제왕은 외형적으로 신체가 커서 위엄이 풍겨야 했다.¹⁶⁾ 그런데 선덕여왕은 체구가 크지 않았던 듯하다. 《삼국사기》에서는 대개 왕의 즉위 기사에 왕의 성품과 덕목을 기재하는데 큰 체구를 덕목으로 든 기록이 적지 않다.¹⁷⁾ 삼국의 왕들이 모두 그러했지만 신라만을 예로 들어보면 석탈해가 9척 장신이었고, 실성마립간은 7척 5촌, 아달라이사금, 법흥왕, 진덕여왕은 키가 7척이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15) 귀족들의 반발은 실제로 柒宿과 石品の 반란으로 나타났다.

16) 제왕의 신체적 덕목에 관해서는 신형식, 1984 《한국고대사의 신연구》(일조각) 88 참조.

17) 예컨대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왕으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한’(사무엘상 9장 2절) 사울을 선택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남해차차웅, 조분이사금, 지증왕, 진평왕이 모두 키가 컸다. 《삼국유사》에서 지증왕은 몸이 엄청나게 컸으며 음경이 거대해서 짝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¹⁸⁾ 진평왕은 키가 11척일 뿐 아니라 힘이 대단해서 內帝釋宮에 행차했을 때에 돌층계를 밟자 셋이 한꺼번에 부러졌다.¹⁹⁾

왕으로서 기품이 있어 보이기 위해서는 키가 클 뿐 아니라 풍채, 용모 등이 기이하고 영특하고 雄偉해야 했다. 아달라이사금, 내해이사금, 조분이사금, 흘해이사금, 눌지마립간, 진평왕, 무열왕, 문무왕, 원성왕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儒理이사금의 맏아들 逸聖은 위엄과 명석함이 婆娑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왕위를 파사에게 양보해야 했다.

그런데 선덕여왕은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체구가 크지 않았던 듯하다. 그것은 신라의 다른 두 여왕과 비교해 보아도 그러하다. 바로 뒤에 서술하듯이 眞德女王은 ‘키가 7척 장신이었고 손을 늘어뜨리면 무릎을 넘어갔다’고 한다.²⁰⁾ 이 ‘垂手過膝’은 如來와 轉輪聖王이 갖추었다는 32相 가운데 하나에서 유래되어 불교와 관련된 것으로 오인되기도 하나²¹⁾ 사실은 제왕의 신체적 특징이다. ‘수수과슬’은 중국에서는 불교적인 의미가 탈색되면서 영웅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자주 소개되었으며, 특히 중국의 삼국시대와 남북조시대

18) 《三國遺事》 권1, 紀異1 智哲老王

19) 《三國遺事》 권1, 紀異1 天賜玉帶

20)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眞德王 “長七尺 垂手過膝”

21) ‘수수과슬’을 근거로 진덕여왕이 卽身成佛했다고 주장한 연구도 있으나(조정철, 2009 <신라의 여왕과 여성성불론> 《역사와 현실》 71) 오히려라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수많은 불교 경전이 간행되었지만 여인이 바로 성불했다는 기록은 단 한 군데도 없다. 《佛說無垢賢女經》이나 《腹中女聽慶》에는 기사굴산에서 부처가 설법할 때에 여인이 깨달음을 이루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여자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설법을 듣다가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고 설법을 마쳐 듣고는 곧바로 남자로 변하여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한다. 여인은 범천, 제석, 마왕, 전륜성왕, 여래가 될 수 없다는 女人五障說에 따라 바로 성불할 수 없으며 깨달음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에는 남자가 되어야 했다. 심지어 다음 생에 해탈이 예정되어 있는 극락세계도 남자만이 갈 수 있었다.

史書에서 여러 황제들의 신체적 특징을 소개할 때에 長身과 수수과 슬은 ‘身長〇尺(〇寸) 垂手過膝’로 하나의 상용구처럼 쓰였다.²²⁾ 《삼국사기》의 즉위기사는 결국 선덕여왕이 제왕의 신체적 특징을 갖추고 있었음을 드러낸 표현이다.

그리고 定康王이 누이동생 眞聖女王을 후계자로 지목할 수 있었던 명분도 총명한 것도 있지만 체격이 컸기 때문이다. 진성여왕은 骨法이 장부와 같았다고 한다.²³⁾ 하지만 선덕여왕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록이 전혀 없다. 이는 선덕여왕이 평범하거나 또는 왜소한 체구를 지녔으며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드러내는 특징도 없었다는 뜻이다. 여왕의 용모는 왕으로서의 위엄을 채워주지 못했다.

3. 향기 없는 여왕

선덕여왕에게는 일반적인 왕의 덕목 외에 또 한 가지가 필요했다. 그것은 여인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자태였다. 그러나 선덕여왕에게는 미모가 없었다. 그러한 정황은 《삼국사기》의 선덕여왕 즉위기사와 진덕여왕 즉위기사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삼국사기》에는 선덕여왕의 즉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선덕왕이 즉위했다. 이름은 德曼이고 진평왕의 맏딸이며 어머니는 마야부인이다. 덕만은 성품이 寬仁明敏했다.²⁴⁾

22) 蜀漢의 초대 황제 劉備(재위 221~223)가 키가 7척 5촌으로, 前趙의 초대 황제 劉曜(재위 318~329)가 9척 3촌으로, 北周의 초대 황제로 추존된 宇文泰(55~556)가 8척으로, 陳의 초대 황제 陳霸先(재위 557~559)이 7척 5촌으로, 진의 4대 황제 陳頊(재위 569~582)이 8척 3촌으로 모두 손을 늘어뜨리면 무릎을 내려갔다 한다(《三國志》 권32, 蜀書2 先主傳2; 《晉書》 권103, 載記3 劉曜; 《北史》 권9, 周本紀上9; 《南史》 권9, 陳本紀上9; 《南史》 권10, 陳本紀下10). 유비의 경우에는 ‘垂手下膝’로 표현되었다.

23)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11 定康王 2年

24)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善德王

여왕의 자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고 성품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진덕여왕의 즉위기사는 정반대이다.

진덕왕이 즉위했다. 이름은 勝曼이고 진평왕의 母弟 國飯葛文王의 딸이며 어머니는 박씨 월명부인이다. 승만은 姿質이 豊麗했다. 키가 7척으로 손을 늘어뜨리면 무릎을 넘어갔다.²⁵⁾

진덕여왕이 자질이 풍려하고 키가 7척이었다는 표현은 글래머형의 미인에 키도 늘씬하게 컸다는 말이다.²⁶⁾ 이처럼 앞뒤로 연이어 즉위한 두 여왕에 대한 평가는 매우 대조적이다. 행간에 감춰진 이야기를 들춰보면 선덕여왕은 내면적인 덕목은 갖추었으나 외형적인 덕목은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진덕여왕의 치세에는 왕에게 덕과 지혜가 별로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왕은 그저 외형적인 덕목만 갖추면 되었다. 실질적인 권력은 사실상 김춘추와 김유신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선덕여왕의 자태에 대해 감춰진 이야기를 찾아냈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도 있다. 그것은 유명한 모란설화이다. 모란설화는 현재 네 개가 남아 있다. 널리 알려진 《삼국사기》(1145), 《삼국유사》(1281)의 설화와 《三國史節要》(1476)에 전하는 《殊異傳》(이하 <절요수이전>으로 한다)에 실린 설화, 그리고 權鼈(1589-1671)의 《海東雜錄》(17세기)에 전하는 《수이전》(이하 <잡록수이전>으로 한다)에 실린 설화이다. 《수이전》은 신라시대의 기이한 설화를 모은 책으로서, 11세기 고려시대 朴寅亮(?~

25)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眞德王

26) 중국의 미인형이 남북조시대의 가녀린 여인에서 唐代에 풍만한 미인으로 바뀌었고 그 대표격이 양귀비였다는 데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다. 우리 나라 불상에서도 7세기부터는 점차 불상에 살이 붙게 되어 8세기에는 석굴암 본존불의 당당한 체구에게까지 이르게 된다. 진덕여왕이 豊麗했다는 표현은 그러한 미의 관념과 연관이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 글의 주제가 아니므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1096)이 지었다고 하는데,²⁷⁾ 그곳에 수록된 설화는 여러 설화의 모태가 되었으며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모란설화도 아마도 《수이전》에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절요수이전>과 <잡록수이전>의 모란설화는 《수이전》을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삼국사기》 《삼국유사》보다 원형에 가까운 설화일 것이다. 그 가운데 <절요수이전>의 모란설화는 다음과 같다.

당태종이 모란씨와 꽃 그림을 그려 보내왔다. 왕이 꽃을 보고 웃으며 좌우에 말하기를 “이 꽃은 비록 요염 부귀하여 花王이라고 부르지만 꽃에 벌 나비가 없으니 반드시 향기가 없을 것이다. 황제가 내게 이것을 보낸 것은 ‘어찌 짐이 여인으로 왕을 삼겠는가’ 하는 숨은 뜻이 있다.” 하였다. (꽃씨를) 심고 꽃이 피기를 기다려 보니 과연 향기가 없었다.²⁸⁾

<절요수이전>에서는 당태종이 단순히 여인이 왕이 된 것을 문제삼았지만 <잡록수이전>에서는 여인을 ‘짜없는 여인’으로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²⁹⁾ 이는 《삼국유사》의 모란설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³⁰⁾ 설화가 뜻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명백하다. ‘여인=꽃, 여왕=화왕, 향기=미모, 벌 나비=짜’이라는 사실이다. 즉 향기 없는 화왕에 벌 나비가 없는 것은 미모 없는 여왕에 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라는 것이다. 결국 선덕여왕은 미모가 없다고 놀림받은 것이다.

27) 《수이전》의 저자에 대해서는 崔致遠(857~?), 朴寅亮(?~1096), 金陟明(?~?) 등 몇 가지 설이 전하는데 대체로 11세기 박인량의 작품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이동근 엮음, 2008 《수이전 일문》 (지만지) 22~25].

28) 《三國史節要》 권8, “殊異傳 唐太宗 以牧丹子并畫花遣之 王見花 笑謂左右曰 此花妖艷富貴 雖號花王 畫無蜂蝶 必無香 帝遣此 豈朕以女人爲王耶 亦有微意 種待花發 果無香” 모란설화는 정확한 내용이 필요하므로 원문을 하나하나 각 주에 소개한다.

29) 註 68)

30) 《삼국유사》 王曆에는 선덕여왕의 배필로 飲葛文王이 명기되어 있어 모란설화와 모순된다. 선덕여왕의 혼인 여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는데 혼인 여부는 논지와 크게 관련되지 않으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향기라는 것을 꼭 미모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예컨대 여인으로서의 독특한 개성, 매력, 다소곳함 등을 들 수도 있다. 하지만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여인의 향기는 대개 미모이며 《삼국사기》에도 향기를 미모로 표현하고 있다. 그 한 예로 792년(원성왕 8)에 신라에서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면서 金井蘭이라는 이름의 미인을 바쳤는데 그녀는 ‘國色身香’으로 묘사되었다.³¹⁾ 모란설화에 나왔던 ‘國色’이니 ‘香’이니 하는 낱말이 여기에도 똑같이 등장한다. 향기는 바로 身香, 즉 외면의 아름다움이다.

사실 선덕여왕에게서는 아름다운 자태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덕만공주가 왕위에 즉위했을 때에는 어리고 어여쁜 공주가 아니었다. 진평왕은 시조 박혁거세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 재위했던 왕으로서 54년 동안이나 왕의 자리에 있어서 그가 사망하여 공주 덕만이 즉위하게 되었을 때에는 공주는 이미 상당히 나이가 들어 있었다. 선덕여왕의 출생 연도가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즉위 당시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조카인 무열왕 김춘추의 출생연도를 통해 어림잡을 해보면 즉위 당시에 이미 50세 전후의 나이였을 것이다.³²⁾ 조선시대의 남자들도 40대가 되면 ‘翁’이나 ‘叟’를 써서³³⁾ 거의 노인 취급을 받기도 했는데, 삼국시대 여자들은 그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을 것이다. 쉰 살 전후의 나이는 여인으로서 이미 陰道가 끊겨³⁴⁾ 향기가 사라질 나이였다.

31)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 10, 元聖王 八年 “秋七月 遣使入唐 獻美女金井蘭 其女國色身香”

32) 선덕여왕의 친동생인 천명부인의 아들 김춘추(604~661)는 선덕여왕이 즉위한 632년 당시에 29세였다. 천명부인이 만약 20세에 김춘추를 낳았다면 천명부인은 632년에는 48세였을 것이고 그 언니 선덕여왕은 49세 이상이었을 것이다. 정용숙은 52~53세에 즉위한 것으로 추정했다[정용숙, 1994 <신라 선덕여왕대의 정국동향과 비담의 난> 《이기백선생고회기념한국사학논총-고대편·고려시대편》 (일조각) 255].

33) 정조는 47세 때에 <萬川明月主人翁自序>를 썼다.

34) 《皇帝內經》에 여자는 7×7=49세가 음도가 끊어진다고 했는데(男八月生齒 八歲毀齒 二八十六陽道通 八八六十四陽道絕 女七月生齒 七歲毀齒 二七十四陰道

하지만 선덕여왕의 미모는 세월과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본시 젊었을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선덕여왕이 15년간 왕위에 있다가 죽고 난 뒤 647년에 사촌동생인 진덕여왕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때 진덕여왕의 나이는 선덕여왕이 즉위했을 때보다 더 많아서 예순 가까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지만 진덕여왕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밝혔듯이 《삼국사기》에 글래머형의 미인으로 소개되었다. 그리고 선덕여왕의 둘째 동생 선화공주는 《삼국유사》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美艷無雙’한 미인이었다고 표현되어 있다.³⁵⁾ 설화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다. 선덕여왕에게는 미모가 없었던 것이다.

Ⅲ. 성스럽고 위엄 있는 여왕으로

선덕여왕이 왕위에 오른 후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은 왕으로서의 위엄을 갖추는 것이었다. 그래서 즉위하던 해에 곧바로 ‘聖租皇姑’라는 존호를 봉헌 받았다.³⁶⁾ 성조황고는 말 그대로 ‘성스러운 조상의 후예인 여황제’라는 극존칭이었다. 선덕여왕에게는 眞智王 이전의 왕들과는 다른 혈통상의 특징이 있었다. 바로 석가모니의 후예라는 것이었다. 신라 왕실에서 진평왕의 아버지 銅輪太子 계열의 혈족집단은 자신들이 다른 혈족과는 다른 신성한 뼈를 이어받은 족속이라고 주장했다. 그것이 바로 성스러운 석가모니의 뼈를 이어받았다는 聖骨 의식이었다. 그래서 진평왕은 자신의 이름을 석가모니의

通 七七四十九陰道絶), 여왕은 이미 음도가 끊어졌거나 곧 끊어질 나이였다.

35) 《三國遺事》 권2, 紀異2 武王

36) 성조황고 존호가 선덕여왕 4년에 올려졌다는 견해도 있으나(신종원, 1996 <『삼국유사』 선덕왕지기삼사조의 몇 가지 문제>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7, 44) 이에 대한 비판은 정연식, 2009 <선덕여왕과 성조(聖祖)의 탄생, 침성대> 《역사와 현실》 74의 註)35 참조.

아버지 이름을 따서 白淨이라 하고, 왕비를 摩耶夫人이라 했다. 그런데 선덕여왕이 여자로서 왕위에 오른 명분은 석가족 성골 남자가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선덕여왕 즉위의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덕여왕이 성스러운 조상의 후예임을 내외에 널리 알려야 했다. 그 때문에 성조황고라는 존호가 올려졌던 것이다.³⁷⁾

여왕이 즉위한 다음해 633년에 첨성대가 세워졌다.³⁸⁾ 첨성대는 박혁거세가 태어난 우물에 석가모니가 태어난 마야부인의 몸을 겹쳐서 만든 상징물이었다. 선덕여왕의 조상은 박혁거세와 석가모니, 둘이었다. 유럽 절대왕정 시대에 국왕은 평범한 자연인으로서의 신체와 영원히 죽지 않는 정치적 신체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기이한 國王二體論이 교회와 정치이론가에 의해 만들어졌듯이, 여왕은 조상이 둘인 존재로 만들어졌다.

첨성대는 창구 없이 원통형으로 서 있는 蘿井의 우물 형태를 본떠서 만들었다. 그러므로 신라인들은 첨성대를 보는 순간 그것이 우물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정과는 달리 아랫부분을 불룩하게 하고 중간에 창구를 두어 석가모니가 나온 마야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를 표시했다. 그리고는 월성 앞 대로에서 옆구리가 잘 보이도록, 그리고 옆구리로 보이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마야부인을 정동향으로 세우지 않고, 약간 돌아서게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위대한 인물의 탄생은 별에 의해 예고되었다. 진평왕 시절 자장(慈藏)과 원효(元曉)가 잉태될 때에 어머니가 별이 떨어져 품에 안기는 꿈을 꾸었고, 평양에 고구려의 위인 9명이 탄생할 때에 9개의 별이 날아든 자리에 첨성대가 세워졌으며, 이러한 인식은 후대에도

37) 이후 서술은 <위 논문> 참조.

38) 첨성대 건립연대에 대해서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정관 7년(633)으로 《증보문헌비고》에서는 선덕여왕 16년(647)으로 기록되어 있다. 선덕여왕 16년은 정관 21년인데 《증보문헌비고》의 편찬자가 ‘貞觀廿一年’을 선덕여왕 16년으로 옮긴 것이다. 그런데 ‘廿一’은 세로쓰기를 하면 ‘卅’ 모양이 되는데 ‘七’자가 450년을 지나는 동안 汚損되어 잘못 읽은 것으로 짐작된다.

그대로 남아 강감찬이 태어날 때에는 낙성대에 별이 떨어졌다. 침성대는 선덕여왕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을 바라보는 별을 바라보는 대였다.

따라서 침성대는 박혁거세가 태어난 우물에 석가모니가 태어난 마야부인의 몸을 겹쳐서 형상화하고 선덕여왕의 탄생을 예고한 별을 쳐다보기 위해 만든 대였다. 결국 침성대는 성조 박혁거세, 성조 석가모니와 성조황고 선덕여왕의 삼위일체 聖誕臺였다. 그 침성대는 선덕여왕의 성스러움과 위엄을 드러내도록 나정보다 훨씬 웅장하게 만들어졌고, 선덕여왕이 있는 宮城인 월성 앞 가까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세워졌다.

그러나 선덕여왕 통치기에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으로 신라는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642년(선덕왕 11)에 백제의 공격을 받아 서쪽 성 40여 개를 빼앗겼고 이어서 고구려·백제 연합군에게 당과의 교통로인 黨項城(화성)을 공격당했으며 곧이어 大耶城(합천)마저 빼앗겼다. 선덕여왕은 당나라에 유학가 있던 자장을 급히 불러들이고 사신을 보내어 구원을 요청했다. 그런데 당태종은 충격적인 제안을 하였다. 신라에서 여자를 왕으로 앉혀서 이웃나라들이 업신여기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임시로 자신의 친척을 보낼 터이니 왕으로 삼아 위기를 모면하라고 권하였다.³⁹⁾ 당태종의 제안이 신라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었을 것은 충분히 짐작된다. 신라가 위기에 빠지자 당연히 여왕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는데 여왕 퇴위까지 거론되니 불난 곳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되고 말았다. 그와 함께 여왕의 위신은 여지없이 추락하고 말았다.

이에 중국에서 돌아온 자장은 선덕여왕이 刹利種, 즉 인도의 크샤트리아족이라는 소문을 다시 퍼뜨리면서 부처님이 미리 정해놓은 왕이니 간사한 소견을 믿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중국에서 만났다는 神人의 말을 빌어 선덕여왕의 문제점을 위엄이 없는 것이라고 진

39)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善德王 12년

단했다. 자장은 왕의 위엄을 살려 줄 상징물을 세울 것을 건의하였고, 그것이 황룡사구층탑이었다.⁴⁰⁾ 나정을 훨씬 능가하는 거대한 첨성대를 세우고, 다시 그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225척 높이의 목탑을 세운 것이다. 그것은 여왕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한 상징물이었다.

IV. 향기롭고 신묘한 여왕으로

1. 향기로운 여왕

앞의 모란설화는 선덕여왕이 미모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모란설화와는 정반대로 선덕여왕이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것이 志鬼說話이다. 지귀설화도 본래 《수이전》에 실려 있던 이야기인데, 현재 《수이전》은 전하지 않고 《수이전》에 실려 있던 지귀설화가 두 군데 전해지고 있다. 하나는 조선시대 成任(1421~1484)의 《太平通載》에 <志鬼>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는 權文海(1534~1591)의 《大東韻府群玉》에 <心火繞塔>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전해 온다.

《태평통재》에 실린 설화는 다음과 같다.

지귀는 신라 活里驛 사람이다. 선덕여왕의 기품과 아름다움을 흠모하여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다가 모습이 초췌해졌다. 왕이 소식을 듣고는 불러들여 “짐이 내일 영묘사에 향을 올리러 가니 너는 그 절에서 짐을 기다려라” 하였다. 지귀가 다음날 영묘사 탑 아래에서 왕의 행차를 기다리다 홀연히 잠이 깊은 잠에 빠졌다. 왕이 절에 도착하여 향을 올린 뒤 지귀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보고는 팔찌를 벗어 가슴에 올려놓고 곧 환궁하였다. 그런 후에 (지귀가) 바로 왕의 팔찌가 가슴에 있는 것을 보고는 왕을 기다려 만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여 한참을 낙담하다가 心火가 일어나 몸을 태우고 지귀는 火鬼로 변했다.⁴¹⁾

40) 《三國遺事》 권3, 塔像 皇龍寺九層塔

이 사건은 《대동운부군옥》에서는 그저 절에서 있던 사건으로 나오는데 《태평통재》에는 靈廟寺에서의 일로 기록되어 있다.

지귀설화의 흔적은 《삼국유사》에도 남아 있다. 하루는 惠空이 새끼줄을 꼬아 가지고 영묘사에 들어가서 金堂과 좌우 經樓와 南門의 廊廡를 빙 둘러 묶어 놓고 剛司에게 “이 새끼를 사흘 뒤에 풀라”고 하여 강사가 이상히 여겨 그대로 따랐는데 사흘 뒤에 과연 선덕여왕이 절에 행차했을 때에 지귀의 심화가 일어나 탑을 불태웠지만⁴²⁾ 새끼줄을 맨 곳만은 화재를 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⁴³⁾

이 설화는 驛人 지귀를 상사병에 들어 火鬼가 되게 할 만큼 선덕여왕이 아름다웠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설화일 뿐 사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였다.

우선 이 설화는 龍樹(Nagarjuna)의 《大智度論》과 釋道世의 《法苑珠林》에 나오는 術波伽 설화와 구성이 똑같다. 어부 술파가가 공주 拘牽頭를 우연히 한 번 보고는 사모하여 상사병이 걸리자 그 어머니가 술수를 써서 아들로 하여금 공주를 天祠에서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잡아놓았는데 약속시간에 술파가가 그만 기둥 밑에서 잠이 들고 말았다. 공주는 술파가가 깨어나지 않자 璽珞을 남겨두고 떠났고 낙심한 술파가는 淫火가 속에서 일어나 불타 죽었다는 것이다.⁴⁴⁾

한편 이 이야기는 명나라 때 馮夢龍(1574~1646)이 편찬한 《情史類略》이라는 설화집에 <化火>라는 제목으로 거의 같은 내용이 전한

41) 《太平通載》 권73, 志鬼: 志鬼 新羅活里駟人 慕善德王之端嚴美麗 憂愁涕泣 形容憔悴 王聞之 召見曰 朕明日行靈廟寺行香 汝於其寺待朕 志鬼翌日歸靈廟寺 塔下 待駕幸 忽然睡酣 王到寺 行香 見志鬼方睡著 王脫臂環 置諸胸 卽還宮 然後乃 御環在胸 恨不得待御 悶絕良久 心火出燒其身 志鬼則變爲火鬼

42) 탑이 불에 탄 것은 석탑이 아니라 목탑이었기 때문이다. 영묘사에는 목탑 둘이 동서로 배치되어 있었다(신창수, 1995 <중고기 왕경의 사찰과 도시계획>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 16, 122).

43) 《三國遺事》 권4, 義解5 二惠同塵

44) 인권환, 1968 <「心火繞塔」說話攷-인도 설화의 한국적 전개-> 《국어국문학》 41 ; 황폐강, 1975 <志鬼說話小考> 《동양학》 5 참조.

다. 蜀나라 공주의 유모 陳氏가 궁중에 드나들 때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 살았는데 아들이 점점 자라면서 공주를 사모하게 되어 상사병이 걸렸다. 공주가 그 어머니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는 까닭을 묻자 어머니는 사실대로 이야기했고 공주는 祆廟에서 진씨의 아들을 만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공주와 만날 시간에 아들은 잠이 들었고 공주는 반지를 빼어놓고 떠났다. 나중에 깨어난 아들은 가슴에서 불이 일어나 천묘를 태우고 죽었고 후에 천묘의 胡神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⁴⁵⁾

앞의 두 설화를 살펴보면 지귀설화는 술파가설화나 陳氏子설화를 들여와 약간 개조한 설화이지, 신라에서의 사건을 토대로 신라에서 만들어진 설화가 아니다.

선덕여왕이 지귀를 상사병에 걸리게 할 정도로 아름다웠을지도 의문이다. 선덕여왕에게 미모가 없었음은 이미 앞에서 밝혔다. 그리고 영묘사가 낙성된 것은 635년(선덕왕 4)의 일로 선덕여왕이 50세에 즉위했다면 이 이야기는 결국 53세부터 65세 사이에 있었던 사건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미 선덕여왕은 남자를 상사병에 걸리게 할 나이는 아니었다.

또한 선덕여왕이 아무리 늙고 미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역인을 만나러 했다는 상황설정은 어색하다. 驛의 일은 아주 천하고 고된 일이었다. 조선시대에도 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비록 신분은 양인이지만 하는 일은 천해서 七般賤役 가운데 하나였다.⁴⁶⁾ 대상이 공주라

45) 조용호, 1997 <지귀설화고> 《고전문학연구》 12

46) 조선시대에 烽軍, 水軍, 驛卒 등은 하는 일이 아주 천하고 고되어 특수신분으로 묶어두고 그 직역을 자손에게 세습시켰다. 驛站제도가 가장 발달했다는 원나라에서도 站戶의 생활은 비참하기 짝이 없어서 “참호의 뼈가 말뻐처럼 후사당하고 꿀 한 묶음, 콩 한 말이 피땀에서 나온다”고 한탄하였다[臧麟, 1997 《中國古代驛站與郵傳》(商務印書館) 161~162]. 서양에서도 우편업무를 ‘포스트(post)’라고 부른 이유는 驛民의 신분을 고정, 세습시키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여 역에 말뻐처럼 박아둔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경북 점촌 시가지에서 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조선시대 찰방을 두었던 幽谷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주민들은 최근까지도 이웃마을 주민들과 혼사 맺기도 어려웠

면 혹시 모르지만 역인이 여왕을 흠모하여 여왕에게 접근했다면, 설화가 아닌 현실세계에서 여왕이 기뻐했을까? 아마도 “아무리 내가 늙고 못생겼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왕인데 어떻게 천한 역인 따위가 감히?” 하고 화를 낼 일이다. 또 지키는 여왕이 그 전날 미리 불러서 여왕을 이미 만났는데 다음날 영묘사에서 못 만나서 원귀가 되어 죽었다는 것도 어색하기 짝이 없다.⁴⁷⁾

술파가설화와 진씨자설화가 지귀설화와 다른 점은 우선은 공주가 등장한다는 점이며, 인도의 구모두 공주나 촉나라 공주와는 달리 선덕여왕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고대의 사랑 이야기에는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무왕과 선화공주처럼 공주가 등장하는데 유독 이 설화에는 선덕여왕이 직접 등장한다. 선화공주 이야기처럼 가공의 공주를 만들어 이야기를 구성해도 되는데⁴⁸⁾ 지귀설화에서는 공주를 제쳐두고 선덕여왕이 직접 등장했다. 술파가설화나 진씨자설화처럼, 또는 온달설화나 무왕설화처럼 공주와 천민의 사랑 이야기라면 모르되 여왕과 천민의 사랑 이야기는 적잖이 어색해 보인다. 그것은 선덕여왕을 가공의 설화에 끼워 넣어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굳이 공주가 아닌 여왕을 설화에 넣은 것은 선덕여왕을 초야에 묻힌 미천한 역인까지도 상사병에 걸려 죽게 만들만큼 아름다운 여왕, 향기로운 여왕으로 만들려는 희망의 소산이었다.

선덕여왕은 침성대를 세운 이듬해 634년(선덕왕 3)에 芬皇寺를 세

고, 교사들도 부임을 기피하여 학교 이름까지 바꾸었다고 한다[최영준, 2009 <길과 문명> 《우리 역사와의 소통과 교통로》 (부산대학교 박물관) 10].

47) 물론 지귀설화를 신분의 차이를 넘어선 사랑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고[이정원, 2008 <애정 전기소설사 초기의 서사적 성격-《대동운부군옥》에 실린 《수이전》 일문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 또 술파가설화의 의도는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도 높지만 지귀설화 단계에서는 이미 내용이 약간 바뀌고 뒷부분이 첨가되어 사랑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48) 선덕여왕의 친동생인 선화공주와 백제 武王에 관한 설화가 있으나 선화공주의 존재 자체가 의심받고 있다.

왔다. 모란설화에도 보이듯이 선덕여왕은 향기 없는 여인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지귀설화와 같은 맥락에서 여왕을 향기로운 여왕으로 만들기 위해 芬皇寺가 설립되었다. ‘芬皇’은 말 그대로 ‘향기로운 황제’라는 뜻이다.⁴⁹⁾ 芬皇寺는 ‘王芬寺’라고도 불렀는데⁵⁰⁾ 역시 ‘왕은 향기롭다’는 뜻이다.⁵¹⁾ 그리고 분황사에는 바로 중고왕실의 권위를 聖化하고 여왕체제를 적극적으로 수호했던 자장이 머물렀다.⁵²⁾ 분황사는 여왕의 미모에 대한 이미지를 반전하기 위해 세운 상징적 건축물이었다.

2. 신묘한 여왕

그런데 지귀설화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다. 비록 陳氏子설화가 지귀설화보다 늦게 수록되었지만 두 설화를 술파가설화와 비교해 보면 진씨자설화가 술파가설화에 훨씬 가깝다. 진씨자설화에는 술파가설화에서처럼 공주가 등장하며 남자 주인공의 어머니가 아들과 공주의 만남을 주선한다. 그러므로 설화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술파가설화가 진씨자설화를 거쳐 지귀설화로 발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지귀설화에는 설화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앞의 설화가 바뀌기도 하고 없었던 이야기가 첨가되기도 했다. 진씨자설화를 원형인

49) 남동신, 1999 <원효와 분황사 관계의 사적 추이> 《분황사의 제조명》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79쪽

50) 《三國遺事》 권4, 義解5, 圓光西學 “如芬皇作王芬寺之例也”; 《三國遺事》 권4, 義解5, 慈藏定律 “命住芬皇寺(唐傳作王芬)”

51) 당시에는 절 가운데 ‘皇’자가 들어간 건물이 여럿 세워졌다. 그런데 후에 황자가 바뀌었다. 皇龍寺는 黃龍寺로 쓰기도 하고, 황복사터에서는 ‘皇福’이라고 쓴 기와와 ‘王福’이라고 쓴 기와가 함께 발견된다. 이렇게 ‘皇’을 ‘王’ 또는 ‘黃’으로 바꾼 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된다[전덕재, 2006 <신라 왕궁의 배치양상과 그 변화> 《신라왕경의 구조와 체제》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74].

52) 남동신, 1999 <앞 논문> 84

술파가설화와 비교해 보면 술파가는 姪火가 일어나 스스로 불타 죽었다는 것에서 이야기가 끝난다. 하지만 진씨자는 祆廟를 불태우고 胡神이 되었는데 이는 술파가설화에서는 없는 부분이다. 또한 지귀설화를 그 전 단계의 진씨자설화와 비교해보면 지귀가 火神이 된 것은 진씨자설화와 같은데, 지귀설화에는 진씨자설화에는 없는 새로운 이야기가 보태졌다. 지귀설화는 지귀가 火神이 되고 난 뒤의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왕이 術士에게 명하여 주문글[呪詞]을 짓기를 “지귀 가슴에 일은 불이 / 몸을 태워 火神 되었네 / 蒼海 밖으로 떠돌아다니니/ 불 수도 없고 서로 친할 수도 없네” 라고 하였다. 당시 풍속에 이 주문을 문벽에 붙여두어 화재를 막았다.⁵³⁾

본래 지귀설화의 모체인 《대지도론》의 술파가설화가 제시한 메시지는 여인은 음욕으로 남자를 망치니 조심하라는 것이었다고 한다.⁵⁴⁾ 그러나 지귀설화의 메시지는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여기서 선덕여왕은 火鬼를 집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여 푸른 바다 밖으로 내모는 신령스런 힘을 지닌 왕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귀설화의 메시지는 바로 두 가지이다. 선덕여왕은 지귀라는 역인을 상사병에 걸려 죽게 만들만큼 아름다웠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선덕여왕은 지귀 화신을 물리치는 신령한 힘을 지닌 왕이라는 것이다.⁵⁵⁾

지귀설화에 나타난, 선덕여왕의 영험하고 신묘한 능력을 상징하는 건물이 분황사가 창건된 다음해 634년에 지은 靈妙寺이다.⁵⁶⁾ 그런데

53) 《太平通載》 권73, 志鬼 “於是王命術士 作呪詞曰 志鬼心中火 燒身變火神 流移滄海外 不見不相親 時俗 帖此詞於門壁 以鎮火災”

54) 그러나 《대지도론》의 해석은 매우 어색하다. 아마도 인도에 전해져 오는 민간 설화를 용수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듯하다.

55) 선덕여왕은 국왕의 신분으로 미천한 역인을 만나주려 했던 寬仁한 왕이었다는 메시지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메시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56) 영묘사터는 전에 흥륜사터로 지목된 경주시 사정동의 고속도로 진입로 길가

영묘사는 《삼국유사》 안에서도 ‘靈妙寺’로도 표기되고 ‘靈廟寺’로 나타나기도 한다.⁵⁷⁾ 처음 절이 창건되었을 때의 이름은 여왕은 영험하고 신묘하다는 뜻의 ‘靈妙寺’였을 것이다. 그러나 선덕여왕이 죽은 후 영험하고 신묘하다는 ‘靈妙’의 뜻을 강조할 필요가 사라지고, 영묘사의 기능이 변하여 사당 역할을 하게 되면서 ‘靈廟寺’라는 새로운 이름이 덧붙여졌을 것이다. 그러나 초창기의 ‘靈妙寺’라 쓴 편액은 그대로 남았을 것이다. 그 후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靈廟寺’라는 이름은 잊혀지고 편액의 ‘靈妙寺’라는 글씨가 남아 조선시대 기록에 모두 ‘靈妙寺’로 남았을 것이다.⁵⁸⁾

그리고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처음에는 영험하고 신묘하다는 뜻의 ‘靈妙寺’였는데 술과가도 天祠에서 불타 죽었으며, 진씨자도 祆廟에서 불타 죽었다. 모두 사당에서 죽은 것이다. 따라서 영묘사도

로 생각되며, 흥륜사터는 현재 경주공업고등학교 부지에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오영훈, 1992 <신라왕경에 대한 고찰-성립과 발전을 중심으로-> 《경주사학》 11, 19; 신창수, 1995 <앞 논문> 122~123; 박방룡, 1999 <신라 왕경의 寺刹造營> 《미술사학》 13, 122]. 그것은 지금의 흥륜사터로 전해지는 곳에서 ‘승妙寺’, ‘大令妙寺’ 등의 명문이 새겨진 기와가 다량 출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삼국유사》 ‘지기삼사’에 궁궐 서쪽에 있다고 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경주부 서쪽 5리에 있다고 했는데 흥륜사터로 전하는 곳과 일치한다.

57) 『三國遺事』 권1, 紀異1 善德王知幾三事; 권2, 紀異2 孝恭王; 권4, 義解5 二惠同塵 에는 ‘靈廟寺’로, 권3, 興法3 阿道基羅; 塔像4 靈妙寺丈六; 塔像4 彌勒仙花·未尸郎·眞慈師 에는 ‘靈妙寺’로 기록되어 있다.

58) 《世宗實錄》 地理志 慶尚道 慶州 靈妙寺; 《續東文選》 권3, 五言古詩 鷄林八觀 靈妙寺; 《東史綱目》 3下 乙未年 新羅善德女主 4年; 成倪, 《虛白堂集》 권5, 詩 靈妙寺; 曹偉, 《梅溪集》 권1, 五言古詩 鷄林八觀 靈妙寺; 吳守盈, 《春塘集》 권2, 詩 東都懷古 다만 金時習의 시 <등영묘사부도(登靈廟寺浮堵)>에는 靈廟寺로 되어 있다(《梅月堂集》 권12, 詩 遊金鰲錄 登靈廟寺浮圖). 이는 靈妙寺가 靈廟寺로 바뀐 뒤에 세워진 부도 또는 부도비문에 靈廟寺로 적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는 부도가 9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세워지고(현존 최고 부도는 844년의 염거화상부도이다) 초기에는 절의 경내가 아닌 가까운 외곽에 주로 세워졌으므로(시에도 “영묘사부도에 오르니 오직 나무 부도 하나만 남았다”고 했는데 이는 영묘사 경내 풍경을 묘사한 것이 아니다) 경내의 편액을 보지 않고 쓴 시일 수도 있다.

사당이 되어야 설화가 완벽하게 뒷받침되므로 ‘靈廟寺’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분황사의 ‘皇’과 왕분사의 ‘王’은 서로 의미가 비슷하지만 영묘사의 ‘廟’와 ‘妙’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 그런데도 이름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廟’와 ‘妙’의 예전 발음이 모두 ‘미애우[miæu]’였기 때문이다.⁵⁹⁾ 영묘사의 이름이 두 가지인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⁶⁰⁾

왕의 위대한 능력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초자연적인 신령스러운 능력이다.⁶¹⁾ 선덕여왕의 영험하고 신묘한 능력이 발휘되는 곳은 당연히 그 뜻대로 이름을 지은 영묘사여야 한다. 《삼국유사》에서 개구리가 울어 백제 군사의 침입을 알려준 곳은 영묘사 옥문지였고, 지귀가 심장에서 일어난 불로 죽은 곳도 영묘사였으며, 혜공이 새끼줄

59) 周法高(主編), 1973 《漢字古今音彙》 香港中文大學出版; 藤堂明保·加納喜光, 2005 《(學研)新漢和大字典》 學習研究社

60) 영묘사터에서 발견된 기와조각에는 ‘승妙寺’라는 글자가 좌우가 반전된 상태로 새겨져 있다. 그런데 승廟寺는 영묘사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다. ‘靈’자는 획수가 25획이나 되는 복잡한 글자라서 질기와의 돌을새김으로 넣기도 어렵고 뚫기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발음이 같은 글자 가운데 간단한 글자 ‘승’자를 넣었던 것이다. 실제로 鮑石亭 터에서 ‘砲石’이라 쓴 기와가 발견되듯이 기와에는 복잡한 정자를 쓰지 않고 약자를 쓰거나 음이 같은 간단한 글자로 쓴 사례가 많다. 기와의 글자를 넣은 것은 기와를 다른 곳에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굳이 정확한 글자를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약자나 발음이 같은 다른 글자를 좌우가 뒤바뀐 형태로 넣어도 무방했던 것이다. 靈妙寺는 唐代 中古音으로 읽으면 ‘리앵미애우지[liæŋmiæuzi]’로서 ‘靈’과 ‘승’의 발음은 ‘리앵’으로 똑같았다. 그러므로 서로 넘나들 수 있었던 것이다([liæŋmiæuzi]에서 [i]는 [i]와 [e]의 중간음으로 우리말의 ‘ㅣ’와 거의 같고, [ɛ]는 [e]와 [æ]의 중간음으로 우리말의 ‘ㅐ’와 거의 같다).

61) 신성로마제국에서는 황제의 몸에 손이 닿으면 풍성한 수확을 보장받게 된다고 믿어 하인리히 4세의 행차에 농민들이 몰려들었고, 잉글랜드에서는 헨리 1세(1100~1135)때부터 왕의 손이 닿으면 몇 가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마르크 블로크/한정숙譯, 1986 《봉건사회Ⅱ-계급과 통치-》 (한길사) (Marc Bloch, 1968 *La société féodale*, Albin Michel Edition), 155~159].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는 악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로 인식되었던 連珠瘡을 손을 대어 치료해 줌으로써 국왕권의 신성함을 널리 알리려 했다(이지원, 2004 <앞 논문> 229).

을 둘러서 안쪽으로는 불이 옮겨 붙지 않게 한 영험한 일이 일어난 곳도 영묘사였다. 그리고 자루를 걸어둔 錫杖을 날려 시주를 받았고, 온갖 신묘한 재주를 지녔던 良志가 禪定에 들어간 상태에서 흠을 주물러 거대한 丈六三尊像을 만든 곳도 영묘사였다.⁶²⁾

V. 신통력 있는 여왕으로

1. 모란설화

<절요수이전>과 <잡록수이전> 그리고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모란설화가 조금씩 다른 것은 처음 만들어진 설화가 여러 형태로 전승되고 개작되어 《수이전》에 수록되고, 또 필사되어 전하면서 여러 가지 異本이 나오고 그것이 다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수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모란설화는 일반적으로 《삼국유사》의 설화가 가장 널리 알려져 선덕여왕의 지혜를 칭송한 설화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네 설화가 전하는 메시지는 조금, 때로는 많이 다르다. 《삼국사기》의 모란설화는 <절요수이전>의 모란설화와 상당히 다르다.

전왕(진평왕) 때에 당나라에서 모란꽃 그림과 꽃씨를 얻어와서 덕만에게 보였더니 덕만이 꽃은 비록 빼어나게 곱고 탐스럽지만 향기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왕이 웃으면서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더니 “대개 여자가 國色이면 남자가 따르고 꽃에 향기가 있으면 벌 나비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꽃은 빼어나게 곱고 탐스럽지만 그림에 벌 나비가 없으니 틀림없이 향기 없는 꽃입니다.” 하였다. 씨앗을 심으니 과연 말한 그대로였다. (덕만의) 미리 아는 것이 이와 같았다.⁶³⁾

62) 《三國遺事》 권4, 義解5 良志使錫

63)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善德王 “前王時 得自唐來牡丹花圖并花子 以示德曼 德曼曰 此(花雖絶艶 而必無香)氣 王笑曰 爾何以(知之 對曰 圖花無蜂蝶

우선 앞의 <절요수이전>에서는 꽃씨와 꽃그림을 당태종이 의도적으로 보내온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삼국사기》에서는 당태종이 보냈다는 언급이 없이 그저 당나라에서 ‘얻어온[得自唐來]’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절요수이전>에서는 덕만공주의 신통력에 대한 칭송은 없이 당태종이 여자가 왕이 된 것을 못마땅해했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삼국사기》에서는 그에 관한 이야기는 없이 다만 선덕여왕의 신통력을 칭송하고 있다.

《삼국유사》의 설화는 또 약간 달라진다.

예전에 당태종이 붉은색, 자주색, 흰색 세 가지 색의 모란꽃 그림과 씨앗 3되를 보내왔다. 왕이 꽃그림을 보고 “이 꽃은 반드시 향기가 없을 것이다” 하고는 뜰에 심으라고 했는데 꽃이 피기를 기다려 보니 과연 말 그대로였다 … 그때 여러 신하들이 왕에게 어떻게 아셨느냐고 물으니 “꽃그림에 나비가 없어서 향기가 없는 것을 알았다. 이는 바로 당 황제가 과인이 짝이 없다고 업신여긴(欺)⁶⁴ 것이다” 하였다. 이에 여러 신하들이 聖智에 탄복했다. 3색 꽃을 보낸 것은 신라에 세 여왕이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니 선덕, 진덕, 진성을 말한 것이다. 당나라 황제가 뛰어난 지혜가 있음을 이로써 알 수 있다.⁶⁵

《삼국유사》 설화에서는 三色 꽃, 三升의 씨와 같은 다른 요소가

故知之 大抵女有國色 (男隨之 花有香氣 蜂蝶隨之)故也 此花絕艷 而圖畫又無蜂蝶 是必無香花 種植之 果如所言 其先識如此” 괄호 안은 缺字된 부분인데 추정하여 넣은 것이다.

- 64) 이동환은 ‘欺’자를 속인다는 뜻으로 보아 ‘나무라다, 헐뜯다’의 뜻을 지닌 ‘謾’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였으나 ‘欺’자에는 ‘깎보다, 업신여기다’의 뜻이 있어 그대로 두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이동환 校勘, 1973 《三國遺事》 (영인본) (민족문화추진위원회) 82].
- 65) 《三國遺事》 권1, 紀異1 善德王知幾三事 “初 唐太宗送畫牡丹 三色紅紫白 以其實三升 王見畫花曰 此花定無香 仍命種於庭 待其開落 果如其言 … 當時群臣啓於王曰 何知花蛙二事之然乎 王曰 畫花而無蝶 知其無香 斯乃唐帝欺寡人之無耦也 … 於是群臣皆服其聖智 送花三色者 蓋知新羅有三女王而然耶 謂善德眞德眞聖是也 唐帝以有懸解之明”

덧붙여졌다. 3은 ‘많다’ ‘여러 가지’의 뜻을 갖고 있다. 그것은 선덕여왕 당대에 덧붙여졌을 수 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는 당태종의 신통력에 관한 부분이 사족으로 덧붙여졌다. 일반적으로 《삼국유사》가 고대 문화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당부분은 원형 자체가 아니라 원형에 오랜 세월이 걸쳐 누적된 사고가 덧붙여진 결과물이라는 지적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⁶⁶⁾

그런데 설화의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정리해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로 당태종이 꽃씨를 보내온 시점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도 몇몇 연구자들이 관심을 두었는데 《삼국사기》와 <잡록수이전>에는 명백히 진평왕 때의 일로 기록되어 있고, 《삼국유사》와 <절요수이전>에서는 선덕여왕 때의 일로 기록되어 있다.⁶⁷⁾ 공주 때의 일로 전하고 있는 <잡록수이전>의 모란설화는 다음과 같다.

진평왕 때에 당태종이 모란씨 3되와 모란꽃을 보내왔다. 왕이 덕만에게 보이니 덕만이 웃으면서 “이 꽃은 향기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어떻게 아느냐?” 하니 “이 꽃은 부귀하여 비록 화왕이라고 부르지만 벌 나비가 없으니 (벌 나비 없는 꽃을 화왕이라 부르는 것이) 어찌 짐이 짝없는 여인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였다. 뜰에 심어놓고 꽃이 피기를 기다리니 과연 향기가 없었다.⁶⁸⁾

<잡록수이전>에서는 당태종이 “짐이 짝없는 공주를 왕으로 삼으면 벌 나비 없는 꽃을 화왕으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겠는가?”라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진평왕이 공주 덕만을 왕으로 삼

66) 남동신, 2007 <『삼국유사』의 사서로서의 특성> 《불교학연구》 16

67) 《삼국유사》에서는 선덕여왕이 寡人을 자칭하고 있다.

68) 《海東雜錄》 권1, 善德女王 “眞平王時 唐太宗以牧丹子三升及牧丹花圖遺之王以示德曼 德曼笑曰 此花無香氣 王曰 何以知之 曰 此花富貴 雖號花王 而無蜂蝶 豈不朕以女人無偶爲主耶 必有深意 命種於庭 待花發 果無香 (殊異傳)” 밑줄 그은 부분은 필사본 영인본에는 ‘豈不以朕’으로 써 있는데 다른 글자와 뭉개져 잘 보이지 않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以朕’ 글자에 글자순서를 바꾸는 교정표시(‘ ’)가 있다.

기 전에 당태종의 뜻을 물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잡록수이전>의 설화는 사실성이 떨어진다. 신라가 진평왕 말년부터 당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책봉을 받았지만 다음 왕의 즉위까지 당 황제의 의사를 물을 정도로 당에 종속되었다는 것은 성립되기 어렵다.

여왕 때의 일로 전하고 있는 <절요수이전>에서는 당태종이 “짐이 어찌 여인을 왕으로 삼겠는가?” 하였다. 이는 덕만공주가 여왕이 되고 나서 당나라의 책봉을 받으러 사신을 보냈을 때에 책봉을 거부하고 모란꽃과 씨앗을 보냈다는 것이 된다. 실제로 당태종은 선덕여왕을 즉위한 지 3년 뒤에 책봉했고, 진덕여왕은 즉위한 해에 바로 책봉했다. 그리고 제29대 무열왕부터 제35대 경덕왕까지도 모두 즉위한 해나 그 다음해에 다른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았다. 선덕여왕의 책봉은 상당히 늦은 셈이다. 설화로서의 사실성은 <절요수이전>이 월등히 높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이야기의 내용이지 시점이 아니다. 어차피 설화는 사실이 아니라 허구이기 때문이다. 꽃씨를 받은 시점이나 꽃이 핀 시점은 어찌되었든 이야기의 논리적인 전개에는 별로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⁶⁹⁾

둘째로는 모란꽃이 과연 향기가 없을까 하는 문제와 모란꽃에 왜 나비를 그리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모란꽃은 ‘天香國色’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향기와 아름다움을 겸비한 꽃으로 이름나 있다.⁷⁰⁾ 그러므로 향기가 없을 리 없다. 또한 모란꽃 그림에는 원래 나

69) 꽃씨를 보낸 것은 진평왕 때의 일이고 꽃이 핀 것은 선덕여왕 때의 일이라고 해석하는 방법도 있지만 설명이 궁색해 보이며, 만약 그랬다면 설화에서 시점의 차이를 분명히 밝혔을 것이다.

70) 설화의 ‘國色’이란 표현에는 후대에 윤색된 흔적이 보인다. 모란꽃을 ‘국색’이라 표현한 것은 당나라 劉禹錫(772~842)의 <賞牡丹>이 최초이고(《劉夢得先生文集》 권5, 雜體詩 賞牡丹) 이를 天香國色으로 표현하여 널리 퍼뜨린 것은 당 문종 太和(827~835) 연간의 李正封의 詩부터이다. 따라서 이 설화에는 적어도 200년 뒤 사람의 생각이 일부 묻어있다(《唐詩紀事》 권40, 13葉 李正封. 기사에서 이정봉의 생몰년을 고려하면 唐文皇은 唐文宗의 誤記이다).

비를 그리지 않는데 선덕여왕이 그런 해석을 내린 것은 당태종을 오해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⁷¹⁾ 하지만 가공의 설화에서 모란꽃에 향기가 있나 없나, 또는 그림에 벌 나비를 그리나 안 그리나 하는 문제를 따지는 것은 이야기의 주제와 무관한 일로, 불필요하게 논점을 흐리는 사족일 뿐이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을까?

첫째로는 앞에서 밝혔듯이 선덕여왕이 즉위하고부터 책봉 받기 전까지 신라와 당 사이에 알력이 있었거나 아니면 단순한 당태종의 보수적 성향으로 인해 여왕의 책봉이 미루어져서 이를 빗대어 만들어진 설화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는 643년에 당태종이 여왕의 퇴위를 요구한 것 때문일 수 있다. 앞에서 밝혔듯이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빠졌을 때에 당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당태종은 ‘너희 나라가 婦人을 왕으로 삼아서 이웃 나라의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친척을 보낼 터이니 당분간 왕으로 삼아 안정을 꾀하라는 뜻밖의 말을 했다.⁷²⁾ 이는 내정간섭을 넘어서 신라를 속국으로 삼겠다는 몰상식한 발언이었다. 당태종의 발언은 신라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선덕여왕으로서는 더할 수 없는 치욕을 당했다. 그때 시중의 쭈근거림이 모란설화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전자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원래 《수이전》의 설화는 당태종이 여왕을 멸시했다는 것이 주된 이야기이고 선덕여왕의 신통력은 부차적인 이야기였다. 다시 말해서 신통력 있는 여왕이 멸시를 당했다는 것이다. 그것을 주된 이야기와 부차적인 이야기를 바꾸어 여왕이 멸시 당하기는 했지만 신통력이 있었다고 만든 것이 《삼국유사》의 설화이다. 그리고 선덕여왕의 신통력만 다루고 선덕여왕이 멸시받은 사실은 아예 없애버린 것이 《삼국사기》의 설화이다. 이를 표로 만들면 아래와 같다.

71) 조용진, 1989 《동양화 읽는 법》 (집문당) 92~97

72)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善德王 12년 9월

<표> 수록 문헌에 따른 모란설화의 차이

	절요수이전	잡록수이전	삼국사기	삼국유사
선덕여왕의 지위	왕	공주	공주	왕
여왕에 대한 폄하	여인	짜없는 여인	×	짜없는 여인
여왕의 신통력	×	×	○	○

비고: ○는 언급이 있고 ×는 언급이 없다는 뜻이다.

《수이전》,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설화의 주 줄거리는 각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미 선덕여왕 당대에 만들어진 설화가 여러 가지로 변형되어 따로 전승되었으며 일부에서는 나중에 주 줄거리에 각각 다른 요소가 첨가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해석이 가장 적절할 듯하다.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하고 계다가 당태종은 선덕여왕의 퇴위를 권고하였다. 신통력 있다는 여왕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지 못하고 당나라에 구원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멸시를 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수이전》의 설화가 만들어져 떠돌았다. 그런데 신라 왕실과 관련된 사람이나 선덕여왕의 어진 정치를 흠모하던 백성들은 《수이전》의 설화를 선덕여왕이 멸시 당한 사실보다는 선덕여왕의 신통력을 강조하는 설화로 바꾸어 놓았다.

설화는 만든 주체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오래 남기 위해서는 설화를 수용할 토대가 있어야 한다. 선덕여왕은 집권 초기에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보살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신라의 국력이 날로 위축되어 王京이 위협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분출되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선덕여왕을 믿고 추종했던 사람들의 믿음이 바로 설화를 수용해서 바꿔놓는 토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선덕여왕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설화가 <花王戒>이다. 설총이 지었다는

<花王戒>에는 花王이라는 모란꽃과 요염하고 아름다운 장미꽃과 白頭翁이라는 이름의 할미꽃이 등장한다.⁷³⁾ 이 설화는 신문왕(재위 681~692) 때 있었던 이야기로 전하므로 선덕여왕이 죽고 약 40년이 지난 뒤의 일이다. 이 설화에 선덕여왕 설화에서도 등장했던 화왕 모란꽃이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그저 그런 꽃 가운데 굳이 백두옹이라 부르는 늙은 할미꽃을 등장시켜서 이를 아름다운 장미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고 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 설화에 꽃의 왕과 머리가 허연 꽃이 등장하는 것은, 늙고 장미처럼 예쁘지도 않은 여왕을 소중히 여기라는 메시지의 이야기가 복잡하게 분해되고 뒤얽혀 재구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⁷⁴⁾

2. 옥문지설화와 도리천설화

《삼국유사》의 지기삼사에는 두 번째 설화로 옥문지설화가 등장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靈廟寺 玉門池에 겨울인데도 개구리들이 많이 모여들어 3, 4일 동안 울어댄 일이 있었다. 나라 사람들이 괴상히 여겨 왕에게 물었다. 그러자 왕은 급히 角干 闕川·彌吞 등에게 명하여 精兵 2천 명을 뽑아 가지고 속히 西郊로 가서 女根谷이 어딘지 찾아 가면 반드시 賊兵이 있을 것이니 엄습해서 모두 죽이라고 했다. 두 각간이 명을 받고 각각 군사 1천 명을 거느리고 西郊에 가 보니 富山 아래 과연 女根谷이 있고 百濟 군사 5백 명이 와서 그곳에 숨어 있었으므로 이들을 모두 죽였다. 백제 장군 宇素(于召)가 남산 고개 바위 위에 숨어 있었으므로 포위하여 활을 쏘아 죽였다. 또 뒤에 군사 1,200명이 따라오고 있었는데, 모두 처서 죽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 왕이 죽기 전에 여러 신하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어떻게 해서 개구리 우는 것으로 변이 있다는 것을 아셨

73) 《三國史記》 권46, 列傳6 薛聰

74) 모란꽃의 단점 중의 하나는 꽃은 화려한데 열매가 없다는 점이다. 늙은 여왕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창룡, 2007 <善德女王과 牡丹故事 攷> 《어문연구》 35-4, 328~329 참조.

습니까?” 왕이 대답했다.” … 개구리가 성난 모양을 하는 것은 병사(兵士)의 형상이요. 옥문(玉門)이란 곧 여자의 음부(陰部)이다. 여자는 음이고 그 빛은 흰데 흰빛은 서쪽을 뜻하므로 군사가 서쪽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 남근(男根)은 여근(女根)이 들어가면 죽는 법이니 그래서 잡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여러 신하들은 모두 왕의 성스러운 지혜에 탄복했다.

옥문지설화는 《삼국사기》에도 간략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의 설화는 약간 다른데 이는 이미 기왕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이다. 《삼국사기》에서는 사건의 시점이 5월이고 옥문지가 궁궐 서쪽에 있고, 전투지가 신라의 서남쪽 獨山城 옥문곡이었다.⁷⁵⁾ 그런데 《삼국유사》에서는 시점이 겨울이고, 옥문지는 영묘사에 있으며, 전투지는 경주 서쪽 富山 아래 여근곡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5백 명을 죽였다고 하였는데 《삼국유사》에는 따라오는 1,200명도 함께 죽였다고 하였다.

내용은 거의 같은데 시간과 장소가 모두 바뀌고 승전 규모도 바뀌었다. 《삼국유사》에서는 개구리가 겨울에 우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그 개구리가 있는 옥문지는 여왕의 영험하고 신묘한 능력을 상징하는 영묘사에 있었다. 결국 옥문지설화는 신라가 옥문곡 전투에서 승리한 원인을 선덕여왕의 신묘한 능력으로 돌림으로써 선덕여왕이 왕의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설화였다.⁷⁶⁾

모란설화가 미래의 일을 미리 알아낸 것이라고 한다면, 옥문지설화는 같은 시점의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낸 것을 말하고 있다. 즉 모란설화가 시간의 한계를 넘어선 신통력이라면, 옥문지설화는 공간의 한계를 넘어선 신통력이 된다.

지기삼사의 마지막 도리천설화도 왕의 신통력에 관한 이야기이다.

75)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善德王 5년

76) 신종원, 1996 <『삼국유사』 선덕왕지기삼사조의 몇 가지 문제> 《신라문화재 학술발표회논문집》 17, 53

왕이 멀쩡하던 때에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짐이 모년 모월 모일에 죽을 것이니 나를 도리천 가운데 묻어다오”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그곳을 몰라 어느 곳이나고 물으니 狼山 남쪽이라고 했다. 그 달 그 날에 이르러 과연 왕이 죽으니 신하들이 낭산의 양지바른 곳에 장사지냈다. 10여 년 후에 문무대왕이 왕의 무덤 아래 四天王寺를 지었다. 불경에 사천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다고 했으니 바로 왕의 신령스럽고 성스러움을 알게 되었다.

여왕은 자신이 죽을 날을 미리 예언했으며 자신이 묻힐 곳 밑에 훗날 사천왕사가 지어질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은 모두 적중했다. 그런데 이 설화는 모란설화나 옥문지설화와는 두 가지 점에서 크게 다르다.

첫째로 앞의 두 설화는 《삼국사기》에 등장하지만 도리천설화는 그렇지 않다. 둘째로, 두 설화는 선덕여왕 생전에 입증된 이야기이지만 도리천설화는 죽은 후에 입증된 이야기이다.

아마도 도리천설화는 선덕여왕의 신묘함에 관한 설화를 완성하기 위해 사천왕사가 창건된 이후에 추가된 설화였을 것이다. 모란설화, 옥문지설화에 이어 도리천설화가 추가되어 세 가지 설화 ‘지기삼사’가 완비되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하나 둘이 아니라 셋은 많다는 뜻이다.⁷⁷⁾ 예컨대 되풀이되는 세 번은 잦다는 것을 가리킨다. 나무꾼의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이야기,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이 세 번 거짓말 한 이야기 등은 모두 세 번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지기삼사 설화는 구성 면에서도 완벽해진다. 모란설화에서 시간을 넘어 미래의 일을 미리 알아내고, 옥문지설화에서 공간을 넘어 궁성 밖의 일을 보지 않고도 알아내며, 도리천설화에서는 생전의 일 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시기와 사후의 일도 알아내는 여왕의神通력을 완벽하게 증명한다.⁷⁸⁾ 그러므로 도리천설화는

77) 강재철, 1991 <善德女王知幾三事'條 설화의 연구> 《동양학》 2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5

78) 모란설화가 기록에 따라 여왕 때의 일과 공주 때의 일로 나뉘어 나타나는 것

선덕여왕의 신통력을 완성한 설화이다. 그것은 사실을 토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설화의 구성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설화자체의 동력으로 만들어진 설화로 보인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VI. 맺음말

선덕여왕은 시호 그대로 선하고 덕 있는 여왕이었다. 그러나 작은 체구의 여왕은 제왕으로서 필요한 위엄이 없었으며, 여인으로서 필요한 미모도 없었다. 여자로서 처음으로 왕위에 오른 선덕여왕에게 그것은 작지 않은 흠이었다. 나라 안팎의 여론은 썩 좋지 않았을 것이다.

선덕여왕이 제왕으로서 가장 필요한 덕과 지를 겸비했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냉혹한 현실을 헤쳐나갈 수 없었다. 이에 신라 왕실은 여러 가지 이미지를 만들어내었다. 선덕여왕이 박혁거세의 후예이면서 석가모니의 후예라는 점을 강조하여 즉위하던 해에 ‘聖祖皇姑’라는 존호를 올렸다. 그리고는 즉위한 다음해에 그 상징물로 거대한 침성대를 세웠다. 그 이듬해에는 여왕은 향기롭다는 뜻으로芬皇寺를 세웠다. 그리고 다시 그 이듬해에 여왕은 영험하고 신묘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靈妙寺를 지었다.

상징적인 건물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여러 가지 설화가 만들어졌다. 636년 玉門谷에서의 승리를 여왕의 신통력에 의한 것으로 덧칠하는 작업도 언제부터인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인도의 술파가설화나 중국의 진씨자설화를 차용하여 여왕이 아름답고 신통력 있다는 지귀설화도 만들어내었다.

은 본래 여왕 시절의 일이었는 데 왕위에 오른 뒤에나 오르기 전에나 신통력이 있었던 것으로 하기 위해 즉위 전으로 시점을 올린 것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642년부터는 더 암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백제와 고구려의 공격으로 신라의 영토는 크게 축소되었다. 여왕에 대한 불만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왔을 것은 짐작이 되고도 남는데, 《삼국유사》의 황룡사구층탑에 얽힌 이야기에 그대도 드러나 있다. 신라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당나라에 구원을 요청했으나 당태종은 신라의 위기가 여왕 때문이라고 하면서 여왕의 퇴위를 권했다. 당태종의 발언으로 신라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고 거리에는 온갖 소문이 떠돌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이전》의 모란설화였을 것이다. 그 주된 내용은 당태종이 선덕여왕을 깔보고 놀렸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모란설화를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당태종이 선덕여왕을 깔본 것은 약화시키거나 아예 없애고 여왕의 신통력을 부각시키는 설화가 만들어졌다. 그 설화가 《삼국사기》에 실린 모란설화였다.

이어서 중국에서 급거 귀국한 慈藏은 한편으로는 선덕여왕이 석가 모니의 후예로 크샤트리아족이라는 刹利種王 설화를 퍼뜨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신라의 위기를 여왕이 위엄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거대한 황룡사구층탑을 짓게 하였다.

여왕이 사망한 후에는 다시 도리천설화가 만들어졌다. 지기삼사가운데 모란설화가 시간을 넘어선 신통력을 보여준 것이라면, 옥문지설화는 공간을 넘어선 신통력을 보여준 설화였다. 그 두 가지 이야기에 도리천설화가 더해짐으로써 설화는 셋이 되어 완전한 숫자가 되었다. 그리고 선덕여왕의 신통력은 생전에도 사후에도 발휘되는 완전한 것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선덕여왕을 미화하기 위한 설화라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설화를 완벽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설화 자체의 동력으로 만들어진 설화로 보인다.⁷⁹⁾

79) 《삼국유사》의 지기삼사에 영묘사를 지은 일과 침성대를 쌓은 일이 함께 기록된 것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뭔가 일관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 연구자들이 있는데[조동일, 1990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송문당); 강제철, 1991 <앞 논문> 90], 지기삼사와 영묘사는 신통력과 관계되고 침성대

선덕여왕 때에 만들어진 이런 설화들은 왕실에서 만든 것일 수도 있고 민간에서 만든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설화들이 일부 사람들의 의도만으로 지금까지 전해올 수는 없다. 설화가 생명력을 지니고 오래 살아남으려면 그 설화가 수용되고 확산될 토대가 필요하다. 그것은 신라에 선덕여왕을 추종하고 흠모하는 집단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물론 선덕여왕의 통치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선덕여왕이 초기에 보여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다. 그것이 오래도록 기억되어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러한 설화를 살려내어 유포시켰을 것이다. 그래서 여왕이 죽었을 때에 ‘善德’이라는 시호가 바쳐졌던 것이다.

주제어 : 선덕여왕, 모란설화, 지귀설화, 옥문지설화, 첨성대
 투고일 : 2009. 10. 26 심사완료일 : 2009. 11. 14

는 신성성과 관계된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

<ABSTRACT>

Making Queen Söndök's Images

Chung, Yeon-sik

Queen Söndök(善德: reign 632~647) was a good, clever and virtuous Empress. But she was short and plain so she had no dignity. It wasn't a small fault for a queen.

So many images were made for her. She was titled to *Söngjohwanggo*(聖祖皇姑). It means Empress descended from divine ancestors. Her divine ancestors were Hyökgöse(赫居世) who was the progenitor of Silla Dynasty and Shakyamuni Buddha who was regarded as the progenitor of hallowed-bone(聖骨) qualified for royalty.

She built Chömsöngdae(瞻星臺) in 633. It took the shape of well which bore Hyökgöse and Maya's body who bore Buddha.

She built Bunhwangsa Temple(芬皇寺) in 634. The meaning of the name was fragrant empress, She built Yöngmyosa Temple(靈妙寺) in 635. Yöngmyo meant Empress is miraculous and mysterious.

Besides building, many stories were made. In Jigwi(志鬼) story adopted from Indian story it was said that she was beautiful and miraculous. In Okmunji(玉門池) story it was said that she had excellent foresight.

Peony story was most widely known among them. In original peony story it was said that Emperor of T'ang sent seeds and picture of peony to make fun of her. But the story was recomposed. In revised version it was said that she was so mysterious to predict

that the peony wouldn't have fragrancly.

Many stories were made and recomposed during her reign. People of Silla loved the good and virtuos queen so they made and spread the stories to praise her. Her posthumous title was 'Söndök'. It's meaning is 'good and virtuous'.

Key words : Queen Söndök, peony story, Jigwi story. Okmunji story, Chömsöngdae